

주일 예배 순서

- 성령강림 후 제3주 -

- 조용한 기도(Silent Prayer) 시편 98:1-4 다함께
- 찬 송(Opening Hymn) 46장 다함께
- 교독문(Responsive Reading) 19번 다함께
- 공동기도(Prayer)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복인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시어 날마다 그 십자가에 우리 자아를 못 박고 내가 아닌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길 간구합니다. 그래서 단 한 번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이 오직 사랑으로만 채워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목하시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안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이 뿌리 뽑혀 거룩한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로 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사오니 오직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상황과 환경과 사람에게 우겨쌈을 당할찌라도 사람 냄새가 아닌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오며 구주와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사도신경(Apostles Creed) 다함께
- 성경봉독(Scripture) 야고보서 4:11-12 인도자
- 말씀증언(Sermon) 이송원 목사

“비방과 판단의 죄에 빠지지 마십시오”

- 봉 헌(offering) 2장 다함께
- 환영과 소식(Welcome/Announcements) 인도자
- 찬 송(Hymn) 369장 다함께
- 축도(Benediction) 이송원 목사

교회 소식

1.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친교 및 소그룹 모임을 잠정적으로 중단합니다. 4차 추가접종 및 마스크 착용 등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교인주소록 정정 및 추가내용
 - 전화번호 변경 : 기길숙성도 216-327-9671
 - 주소 추가 : 유미희성도 / 전화 (216) 299-8607
47 Sussex Rd. Hudson, OH 44236
4. 담임목사 동정
 - 2주간 시온 한인교회에서 말씀을 인도합니다.

<기도제목>

- 러시아의 침공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종전과 평화를 위해
- 전쟁으로 인해 식량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위기를 맞게 될 아프리카 국가들에 하나님의 공휟과 은혜가 임하시도록
- 미국에 회개와 부흥을 통한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져 사회 전 분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 선교사님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가운데, 모든 사역의 초점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지도록.
-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 아프신 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 박현숙 성도님(좌골신경통 및 빈맥증) / 서희숙권사님(항암치료중)

<말씀묵상> 야고보서 4:11-12

11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12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관대 이웃을 판단하느냐

1.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곧 어떤 일을 하는 것이며, 그럴 때 스스로 어떤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까?(11절) 나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 자유합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발견했을 때 내가 먼저 갖게 되는 생각과 행동은 무엇입니까?
2. 우리가 이웃을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12절) 나는 율법의 창시자이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까?

❖ 한 사람의 인격은 그가 하는 말을 통해서 여실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말은 우리 안에 있는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즉 비판하고 정죄하는 생각 역시 결국에는 말을 통해 표현하게 됩니다. 그것이 상대방에게 전달될 때 그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단순히 기분만 나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찌르는 비수가 되어 그것을 들은 사람은 오랫동안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말은 또 다른 폭력의 수단이 됩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이 언어폭력을 수없이 받기도 하고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이 심각한 죄임을 깨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 함부로 비방하고 판단하는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결국에는 이 죄로 인해 서로 상처를 주고 분열이 일어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서는 비판과 정죄하는 일을 금하셨습니다(눅6:37).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는 교회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비방과 판단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간단하지만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며,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마치 자신이 율법의 집행자가 되는 교만에 이르게 됨을 알려줍니다. 결국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여기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생각나는 대로 기분대로 무심코 내뱉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러한 오류와 죄를 깨닫고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비방과 판단이 아닌,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의무임을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창립 1981년 10월 24일

한 마당 연합 감리 교회



담임목사(Pastor) 이송원 목사(Rev. Songwon Lee)
반 주 자(Pianist) 기길숙 성도

Han Madang United Methodist Church

7800 West Pleasant Valley Road, Parma, OH 44130

☎ 교회: (440)845-1728

E-mail : hanmadang@sbcglobal.net

웹사이트 <http://www.hanmadang.org>